

경제

■ 금호家 사재 출연 ... 계열 분리경영

갈등 봉합 ... 그룹 구조조정 탄력

오너 일가엔 계열사 경영권 유지 노조 동의뎌 신규 자금 신속 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 일가가 대주주 책임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지연돼온 그룹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너 일가가 계열사들을 분리해 경영키로 함에 따라 금호그룹은 앞으로 구조조정 이후 계열분리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 사재출연 합의...계회대로 구조조정 추진=금호그룹 오너 일가의 선택은 그룹이 외부에 의해 해체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경영부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재출연을 거부해 온 박찬구 전 회장뿐 아니라 박삼구 명예회장의 조카들도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손을 들었다.

그 배경에는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내 위상이 자리하고 있다. 금호 오너 일가는 금호산업 자본 10%(약 300억원) 외에 금호석유화학 자본 47%(현 시가총액 기준 약 2천200억원)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계열사를 지배해 왔다.

되면 그룹 전체가 담보물로 잡히는 형국이 돼 채권단의 권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금 쏙쓰기에 대해 일일이 채권단의 확인을 받게 돼 대주주는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모양새가 된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4개 계열사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키로 했다.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2천8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원 논의는 9일 채권단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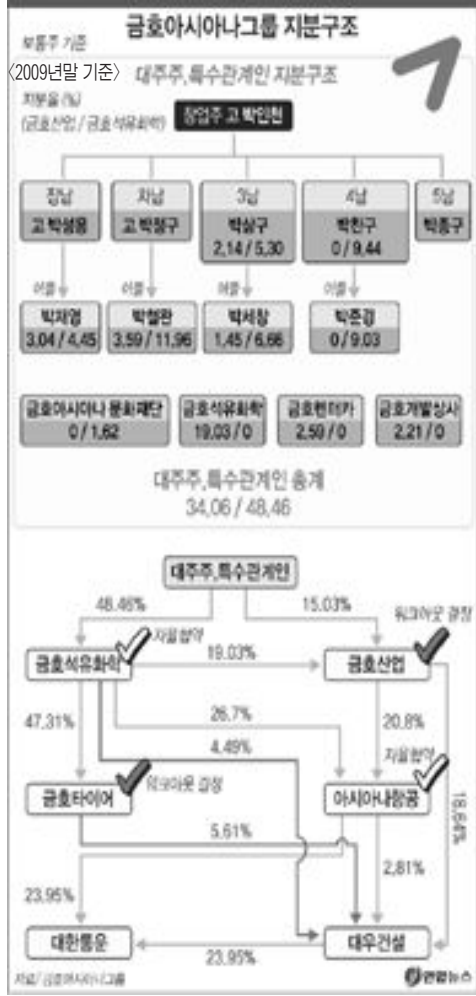
아울러 채권단은 대우건설 풋백업선 해결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FI) 및 금호 계열 채권자들, 노조의 협조 등을 거쳐 3월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호家, 계열 오너별로 분리경영=금호그룹 일가는 보유 계열사 주식을 채권단에 제공키로 하면서 계열 오너별로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그들의 지주회사적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 부자와 박철완 그룹 전략경영본부 부장이 맡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사실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명예회장이 경영한다.

금호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은 박삼구 명예회장이 맡는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는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 이후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셋째가 나란히 계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역임해



왔다. 특히 이번 합의로 박찬구 전 회장은 형인 박삼구 회장에 의해 작년 7월 화학부문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

금호 오너 일가는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자본 47%를 보유하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중 박 전 회장 부자는 금호석유화학 자본을 약 17% 보유해 사실상 최대주주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인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가 8일 광주시 동구 KT빌딩 앞에 개설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설을 앞두고 문물 연 직거래 장터는 10일까지 운영되며, 제주 용품을 중심으로 34개 품목을 시중보다 10~20% 상 가격에 판매한다.

1월 실업급여 신청 사상 최대

광주·전남 1만1천330명 ... 전년보다 22% ↑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수가 22.1% 폭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공공근로와 인턴제 등 지난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얻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업자로 전락, 대거 실업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광주·목포·여수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만1천330명으로 전년 동기 9천279명보다 2천51명(22.1%)이나 늘었다.

특히 광주고용센터의 경우 2009년 1월 신규 신청자가 3천548명에서 올

해 1월 5천466명으로 54% 폭증했다. 목포고용센터도 768명에서 1천13명으로 31.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전년 동기 12만8천명에 비해 지난 1월 13만9천명으로 8.6% 늘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업급여 역시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1월 1만8천975명에게 143억8천300만원이 지급돼 전년 동기(1만5천494명, 119억2천300만원)보다 각각 22.5%, 20.6% 증가했다.

특히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의 실업급여가 크게 증가했다. 광주고용센터에서 지급된 지난 1월 실업급여는 1만2천211명, 92억300만원으로 전년

동기(9천807명, 75억5천500만원)보다 각각 2천404명, 16억4천800만원이 늘어났다.

목포고용센터는 2천802명에게 20억8천200만원이 지급돼 전년 동기보다 35.1%와 32% 늘었고, 여수고용센터는 3천962명, 30억9천800만원으로 각각 9.9%와 10.9% 증가했다.

광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동절기 일자리가 급감했고, 공공근로나 인턴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대부분 12월 끝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 금융위장 "금호 문제 설 이전 해결"

진동수 금융위장은 8일 "금호그룹 문제는 협력업체나 근로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설 이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금호그룹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 책임 문제를 마무리해서 그 걸림돌은 해결했고, 금

호타이어 노조 문제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진 위장은 또 "금호그룹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채권단이 여러 방안으로 적극 설득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학습 연계사업 지원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창규)는 8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습 조직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학습조를 구성·운영하면 기업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Financial summary box with icons and text: 코스피지수 1,552.79 (-14.33), 코스닥지수 487.41 (-9.96), 금리 (국고채 3년) 4.26% (+0.04), 원·달러 환율 1,171.90원 (+2.0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키코 소송 첫 판결 ... 은행이 이겼다

법원 "계약 부당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없어"

한해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 간 분안소송 첫 판결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기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씨티은행이 계약 해지 결제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소(反訴)에서 수산중공업은 은행에 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

▲키코(KIKO)=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형평성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es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del bathroom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and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총별', '입대', '권장 용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펠리스타워빌딩' (Suwon Jigu Lotte Mart Front Pelis Tower Building). Lists 7 floors of commercial spa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Economic Specialist Company Asset Korea). Includes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